

제12회 금정무용제

“그 女
그리고 男
그 男
이야기”

2007. 10. 14. (日)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초대의 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금정무용제의 막을 올리려 합니다.
이번 무대는 재능과 열정으로 끓친 젊은 안무가들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그녀 그남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세계가 어떻게 무대에서 펼쳐질지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무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모로 협조해 주신 금정구청 및 금정예술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용계의 앞날을 짚어지고 나아갈 젊은 안무자들에게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그녀 그리고 그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금정문화회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7년 10월

성은지

금정무용협회장
한국무용교육학회 이사
부산국제해변무용제 집행위원
부산무용협회 이사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부장



인생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친구, 스승과 제자, 가족, 남과 여, 동료...

수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어쩌면 양보와 희생이 강요되는 듯...

느끼고, 이해타산적으로 인간관계를 견뎌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꽃이 피어나는 과정에서 하늘과 땅, 물, 바람, 흙이

서로를 얼마나 잘 품어내는가...

아이를 품은 엄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모든 것은 품어야 할 대상이며,

나또한 소중하게 품겨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함께 품자한다. 같이 날자한다.

안무 왕정희

출연 강경희, 권수정, 이진아, 한지은, 왕정희

祭, 太平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빌어 제를 올려드림으로
인간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함.

1장 땅
끊임없이 수용하는 땅. 차고 넘치게 베푸는 땅.
나와 같이 베풀라. 나와 같이 포용하라. 나와 같이...

2장 하늘의 소리
하늘에 속하지만 땅에 속하는 것들.
땅에 속하지만 하늘에 속하는 것들.

3장 인간
하늘을 거스르지 말며,
땅을 해하지 말며,
포용하고 수용하여 한 바탕 어우러지라.
그의 뜻 안에서..

안무 정혁준
출연 유선영, 김인정, 이승림, 정혁준



Decadence

점점 퇴폐해가는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망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랑을 가득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 또 한 있다.
우리는 이들을 한 무대에서 동시에 볼으로써
우리자신을 되돌아본다.

안무 박준희
출연 박종현, 조현호, 박준희



비탈 로 가는 사람들

제 빛을 등에 지고 비탈길을 가다보면
깃발처럼 눈물을 훔을 추며
지치도록 흔들거린다.
산비탈 푸대기에 억새풀처럼

안무 남대우
출연 장정호, 김태경, M-knot 남대우

비탈
로
가는
사람들
남대우
장정호
김태경
M-knot
남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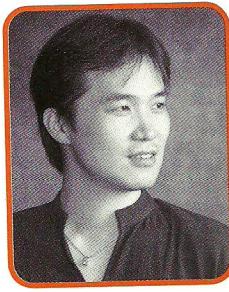
왕정희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부산연극제 대상,
전국연극제 은상작-(BC2430)
안무
현 강미리 '힐' 무용단 정단원

안무작

〈들〉, 〈달아〉, 〈여행〉,
〈기도:나에게로가는길〉

WANG JUNG HEE



정혁준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89년 신인무용콩쿠르-
수석상, 90년 동아콩쿨 금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부산예술고 강사
전 국립무용단 주역단원

안무작

〈청서들〉, 〈교활.낭.패〉
〈시,작!〉, 〈강〉,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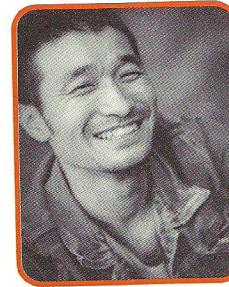
JUNG HYUK JUN



박준희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졸업
프랑스 국립무용학교-
(CNDC-Angers)졸업
프랑스 낭笫 국립무용단-
(CCNN-Claud brumachon)
4년간 정단원 활동
제 32회 한국무용협회-
신인무용콩쿠르 '특상' 수상
제 1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에밀레상' 수상

PARK JUN HEE



남대우

정성대졸업,
전. 국제영화고등학교 강사
현. M-knot 창단멤버

안무작

잿빛도시를 떠나서,
비탈로 가는 사람들
오대장성,
끼워지지 않는 조각에 대한 고민
문을 닫아 놓고서

NAM DAE WOO